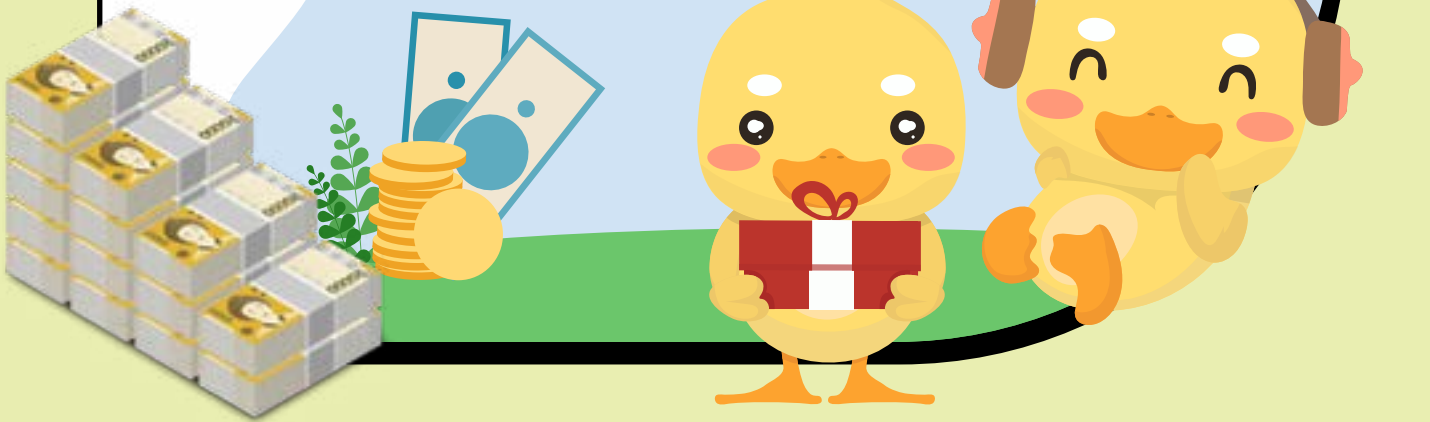


##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리군 건강관리의 중요성

오리군 건강관리의 기본 요소는 필요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오리군 내의 비정상적인 폐사율이나 질병의 증상들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농장주를 포함한 농장 내 오리 관련 종사자는 오리군의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발병할 경우, 이 증상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만약 신고대상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전염병이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 농장의 차단방역시스템을 뚫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농장과 오리 산업 전반까지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 질병을 빨리 발견하여 전파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환축을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모든 백신접종기록과 수의사의 진단 및 치료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장의 폐사기록들은 농장 관리자에게 오리군 내에 잠재되어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보다 전문수의사 또는 병성검사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면 자가 격리를 한다. 이후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이 되면,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오리군 기록 유지

오리군 일일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차단 방역 상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농장주나 관리인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일지를 기록하도록 하여 오리군의 사육관리 및 질병 관리, 업무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각의 오리군에 대한 기록들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 발생 상황을 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기록 유지 필요 사항





- ① 보통 폐사체 발생률은 농장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의사와 상담하는 내용도 기록한다. 병성감정기관에서 시행된 부검 및 병성감정 결과에 대해 가금 전문수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일단 상황이 파악되면 상황에 알맞게 치료하거나 다른 대응 전략들이 생길 것이다. 모든 병성감정 및 수의 진료 기록들이 반드시 오리군 기록 내에 남겨야 한다. 또한, 모든 처방 및 백신 접종 기록과 사료 첨가제 투여 등도 기록해야 한다.
- ② 폐사체 발생기록을 기본으로 오리군 건강기록을 유지하되, 더 자세한 폐사체 발생 및 건강기록, 세분화된 사료섭취 기록 및 음수 섭취 기록,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일일 단위로 기록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사체 발생 상태를 기록할 경우, 기록이 보강되어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농장주가 직접 오리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오리사 관리 담당자에게 폐사체 발견 노력 및 기록에 전념할 것을 교육하고, 농장주 또는 농장 관리자는 기록 또는 기록 유지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 ④ 농장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으면 오리군의 모니터링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비상시에 조치가 더 빠를 수 있다.
- ⑤ 농장 내 CCTV를 설치하여 농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오리군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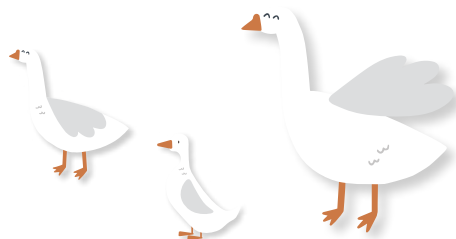


### 종 오리

농장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일일 단위로 사료 급여량과 생산실적을 기록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리알의 생산량이 줄거나, 사료섭취량이 줄거나, 음수 소비량이 늘거나 줄면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환축이나 폐사체들이 보이면 이들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산성과만 관련되었다면 수의사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 육용 오리

육용오리에 있어서 증체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염성 질병의 표시일 수 있다. 이러한 감소가 확인된 경우 사육 관리상 원인이 즉각 확인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조사 및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 기록이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입식 및 출하 시 관리

오리군의 입식 및 출하 시 차단방역을 위한 권장 행동요령으로 올인올아웃(all-in-all-out) 및 단일령 오리군 사육이 있다.

올인올아웃은 차단방역을 위한 위생적인 사육관리가 가능케 하며, 여러 가지 일령이 동시 사육될 때 생기는 질병의 교차 감염 및 난계대 질병 등이 전파될 확률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가에서는 기피할 수 있으나 오리군의 이동과 관련하여 올인올아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장에서 부득이하게 올인올아웃 방식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새로 입식되는 오리들을 기존 농장 내 오리들과 일정기간 격리하여 사육한 후 문제가 없으면 합사시키는 방법이 있다. 격리 오리사는 가능한 한 기존 오리사와 거리가 멀수록 좋고, 격리 기간은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가 좋다. 격리기간 오리들을 관찰하여 질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혈청검사를 통해 전염성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식할 오리군은 항상 입식할 오리군은 항상 전염성 질병 기록이 없는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

입식하는 오리군에 대한 백신접종, 오리군 건강 상태 및 수의사의 검사소견 등에 관련된 서류가 이송업체에 의해 제공받아야 하고, 이러한 자료는 입식하는 농장의 오리군 건강기록에도 첨부되어야 한다.

하나의 오리군 또는 농장에서 다른 곳으로 오리를 옮기는 작업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오리만을 골라서 이동시켜야 한다.



- 초생추의 반입은 가능한 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부화장에서 구입해야 하며, 도입 부화장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반입 시 초생추를 생산한중오리군에서 실시한 주요 난계대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를 받는 것이 좋다.



### 종 오리

- 종오리군에 암컷오리를 도입하는 경우와 수오리군을 늘릴 목적으로 수평아리를 입식하는 경우에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종란보관실에 대한 훈증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식용란 판매를 하는 종오리 농장에서는 오리알의 거래기록과 더불어 오리알 수송차량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반석가금연구소